

전주 호동골 일대, 명품정원으로 가꾼다

호동골 양묘장 · 아중호수 일대 정원 조성 위한 '전주 지방정원 기본구상 용역' 완료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던 호동골 일대가 전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체험과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품은 명품정원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호동골 양묘장과 자연생태체험학습원, 아중호수 일대 약 47만㎡를 창신, 울골음, 대동, 풍류 등 전주정신을 테마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테마정원이자, 관광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호동골 일대를 숲과 정원으로 채워 전주를 대표하는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 '전주 지방정원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호동골 일대는 4개의 테마공간으로 나뉘며, 총 18개의 주제정원과 휴식·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테마공간은 호동골에 △창신정원 △선비(울골음)정원 △

대동정원 등 3개 공간이 조성되며, 아중호수의 경우 풍류정원이 들어선다.

먼저 창신정원의 경우 도시에 꽃과 식물을 제공하던 양묘장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여기에는 주차정원, 환영정원, 물의정원, 한지정원, 영화의정원, 숲정원, 계류원 등 7개의 주제정원과 기든센터, 기든카페, 기든샵 등이 만들어진다.

선비(울골음) 정원은 테라스정원, 경관숲정원, 대쪽정원, 사색정원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 '전주 지방정원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풍류정원은 △시(詩)·사색의 길 △서(書)·책 읽는 호수가



호동골 일대가 전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체험과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품은 명품정원으로 탈바꿈된다.

△락(樂)·문화공연마당 △화(畫)·그림마당 등 4개의 지구로 구분해 조성된다. 이곳은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수변 문화공연장과 한지공예 등 예술공방과 체험장 등이 구축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실시설계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2022년도에 정원 조성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산림청에 호동골 일대의 정원 예정지 지정을, 전북도에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호동골의 3개 테마공간이 완료되는 오는 2023년에는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운영을 활성화해 아중호수와 연계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정원관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꽃심 지방정원은 전주의 정원 문화와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정원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도시의 회복력을 확보하고 생태관광 도시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파트 경비원 인권 보호 신고센터 운영

전주시, 시청·양 구청에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막기 위해

최근 아파트경비원들의 폭언·폭행 등 갑질 피해와 관련해 전주시가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아파트경비원들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유지를 돕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주시청과 양 구청에 운영되며, 폭언·폭행·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피해자 상담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과의 면담을 진

행해 신고센터 운영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칙 등을 홍보키로 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기관과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고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운동을 아파트 경비원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308개의 지역 내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지속 고용하는 '해고 없는 도시'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향후 아파트단지 회장 및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보호와 인사, 노무 관리 등을 주제로 한 윤리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한국철도 전북분부는 2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광모 한국철도 전북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관광과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한국철도 전북본부 '맞손'

지역관광·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관광거점도시 전주시와 한국철도 전북분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전주시와 한국철도 전북분부는 2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광모 한국철도 전북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관광과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지역관광 연계 철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철도 관광상품 판매 및 홍보 지원 △전라감영 등 전주 주요 관광지 홍보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시는 전주만의 관광콘텐츠를 활용해 철도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특히 철도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판매하고 흥

보하는 등 철도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국철도 전북분부는 전주시의 지역축제와 팔복예술공장, 전라감영 등 주요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전주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철도 관광상품 개발에 참여하고 운영·판매·홍보에 따른 각종 제반사항에 협력키로 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전주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철도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며 "관광객들도 전주 여행을 여행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판 구하라 사건' 생모 항고 포기 '양육비 7700만원 주겠다'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1억원 가량의 유족급여를 받아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생모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강신무 변호사에 따르면 숨진 소방관의 생모가 최근 항고를 포기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제안,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인 A(63)씨가 전 부인 B(66)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합의서를 통해 B씨는 1심 판결대로 A씨에게 7700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4000만원은 일시불로, 나머지 금액은 2025년 6월 26일까지 매달 61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B씨는 악화된 여론과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측은 B씨가 약속한 시점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달 보내는 돈을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이번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뉴스

전주시설공단-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업무협약

도내 최초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추진 수상안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나눔 문화 확산 위해 협력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수상구조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2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및 지역 안전사회 구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상안

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및 연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상호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 협조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적십자사는 수상안전 관련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공단은 원산수영장을 교육 장소로 제공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상구조사 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 없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남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설된 국가자격증이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총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인명구조요원 민간자격보다 기준이 높다.

백순기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및 연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2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및 지역 안전사회 구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